

② 도시와 어촌의 교류 실태 및 사례 ④

정치망 발상지에서의 메시지 - 히미시

1. 시(市)의 개요

히미시(氷見市)는 노토(能登)반도 동측기부(基部), 도야마현의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북 21.65km, 동서 18.25km, 면적 230.31km²의 시역(市域)을 가지고 연간 평균기온이 약 14℃인 설국(雪國)으로는 비교적 온난한 인구 약 6만명의 도시이다.

시제시행(市制施行)은 1952년으로 1954년에는 전국에서도 드물게 1군 1시를 실현하고 작년에 50주년을 맞이하였다.

도야마만에 접해있는 연장 19.5km의 온화한 해안선은 노토반도국정(國定)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신선하고 풍요로운 해산물, 도야마만의 우뚝 솟아 있는 회고 빛나는 다테야마(立山)산맥의 웅대한 경관, 녹지 풍부한 농산촌(農山村), 온천수량 풍부한 온천의 고향 등 훌륭한 자연의 은총은 입어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또한 만유의 시인 오오토모노 야카모치 등이 매혹되어 시로 읊던 바다와 고기, 일본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동굴유적「오오자카(大境)동굴 주거

유적지」, 그리고 1998년 6월에 발견된 일본해측 최대(전장107.5m)의 전방후방분「아나기다누노 오야마(柳田布尾山)고분」 등 선조로부터 계승한 미래에 전하고 싶은 귀중한 역사와 문화가 있다.

2. 하얀모래 푸른소나무의 땅

여름의 히미해안은 많은 해수욕객으로 북적거리는 와중에서도 시마오(島尾)는 '일본해수욕장 88선'에 마쓰다카와(松田江)의 긴 모래밭이 '일본의 해안·백선', '산책백선'에 선정되어 히미(氷見)가 아름다운 하얀모래·푸른소나무의 땅임이 전국에 홍보되어 있다.

이 시마오·마쓰다카와의 해변을 바라보는 히미시해변식물원(아로마가든)은 일본각지의 해변식물을 중심으로 식재전시를 하고 있으며 일본제일의 규모를 자랑하는 맹그로브(Mangrove)의 재현림이나 열대·아열대성의 식물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온실원을 비롯해서 약 3,000종에 이르는 세계의 곤충표본을 전시한 전시홀, 마쓰다카와의 긴 모래밭에 이어지는 해변산책원 등 볼 것 많은 남국의 무드가 감도는 식물원이다.

3. 마리노베이션 구상

1992년 수산청의 사업허가를 받아 책정된 「히미지구 마리노베이션거점 어항어촌종합정비계획」(서로 교류하는 어항어촌정비)은 어업과 조화를 이룬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등을 진흥하여 도시주민과 교류 등을 촉진하는 거점형성을 계획하는 것이다.

그 중심이 되는 2000년 4월에 오픈한 ‘히미피셔맨스와프 해선관’은 「가장 맛있는 것을 가장 맛있을 때에」를 컨셉으로 히미의 신선한 해산물, 농산물 등을 제공하는 직판시설로 약 200석의 해산물 레스토랑에서는 아침에 잡은 생선을 사용한 맛있는 생선요리를 맛볼 수 있다. 시설은 안내 센터를 겸하고 있는 정보센터에서는 관광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선관에 근접해 있는 비미내가와대교(比美乃江大橋-사장교)는 마리노베이션사업의 일환으로 정비된 것으로서 도야마만에 떠올라있는 다테야마 산맥의 대 파노라마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야간에는 라이트업을 사용하는 등 히미시의 새로운 심벌로 각광받고 있다.

금후는 임항도로의 전선개통이나 피셔리나(마리나)의 정비, 공공용 매립지의 활용 등 여러사업을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

4. 400년의 역사를 가진 히미의 정치망 어업

‘천연의 가두리’라 불리는 도야마만에서는 300종이상의 생선이 어획되고 히미의 앞바다에는 이 축복 받은 어장을 살려서 대형·소형 합하여 45개의 정치망이 설치되어 있어 어항에는 봄의 정어리, 여름의 참치, 겨울의 방어 등 사계절을 통해서 풍부한 어류가 양륙된다. 위세 있는

경매 목소리로 시작하는 히미의 아침, 활기 있는 시장으로부터 히미의 브랜드인 맛있는 어류가 전국의 시장으로 배달되고 있다. 이러한 ‘어류의 도시·히미’의 수산업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약 400년 전부터 시작된 정치망어법으로 많은 개선을 거듭하여 발전을 이루어 왔다.

1901년 제정된 어업법에 의해 ‘정치망’이라는 말이 사용되기까지 도야마만 연안에서는 1500년 대 후반부터 ‘태망(臺網)’이라 불리웠다. 그물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것은 1907년 종래 부설·조업되고 있었던 태망을 정리하고 당시 미야자키현(宮崎縣)에서 풍어가 이어지고 있던 신형 「히다카식대부망(日高式大敷網-삼각망)」을 도입하면서부터이다.

그후 1910년대 초기 히미의 코우즈케 하치로 우 위위문(上野八郎右衛文)이 히다카식대부망의 결점을 개량하여 망입구 등 개구부(開口部)를 어류가 달아나기 힘들게 작게한 ‘코우즈케식대모망’(이 코우즈케식이 지금의 ‘월중식정치망’의 원형이 되었다)을 고안, 잇달아서 비탈그물을 부착한 ‘함정망’이 1925년경에 출현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후 이 정치망은 넓리 일본전역에 보급되었다. 1965년대에는 ‘이중함정망’이 고안되어 이에 수반하여 그물의 소재도 개량되어 대규모의 그물 부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5. 환경친화적 어법

저인망처럼 어류를 몰아 그안에 있는 어류 거의 대부분을 포획하는 어법과는 달리 모여드는 어류를 기다리는 정치망어법은 포획하는 비율이 일단 그물안에 들어간 어류의 2할정도이며 또한 그물눈의 크기에 따라 대상어류를 정해 어획량의 컨트롤이 가능하다.

또한 잠수조사에 의하면 망 주변에는 작은 어

류가 모여있고 로프에는 조개들이 많이 부착되어 있으며 오징어 등이 알을 낳아 붙여놓은 것이 많이 보이며 망에 부착되어 있는 해초나 어린조개 등이 어촌의 역할을 담당해 어류의 휴식공간으로 되어 있다.

자원의 재생산을 재촉하고 자원확보로 이어지는 이점을 가진 정치망어법은 잡는 어법인 동시에 늘리는 어법으로 한계가 있는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이외에 어류를 될 수 있는 한 상처 입히지 않고 양육하여 선도 높은 어폐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작업자들이 매일 집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생연비(省燃費)·생력화(省力化)·합리화를 향한 노력도 행해지고 있는 것도 정치망의 특징이고 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6. 히미 정치망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실시

본시가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의 3개년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는 「히미 정치망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본시발상의 환경에 친한 자원관리형 어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월중식정치망'을 핵으로 한 국제협력이나 도시어촌교류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다음의 5가지를 주목적으로 내걸고 스타트하였다.

- 개발도상국 등에 기술지도와 보급을 통한 국제협력
- 정치망의 우수한 특성을 평가, 연구, 정보발신
- 해양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연구
- 어식문화의 교류
- 어업의 활성화에 의한 지역활력의 창출

〈2000년도의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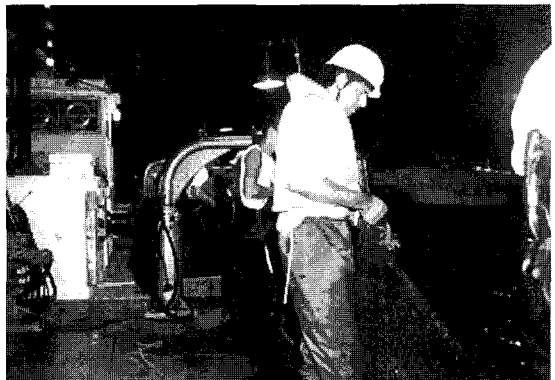
● 히미 정치망 트레이닝 프로그램 실행위원회 설치

수산업관계단체, 국제교류단체, 현의 대표 및 학식경험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장인 히미시장을 비롯해서 각각의 위원이 사업의 목적을 공유화하고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국제정치망 실지연수의 실시

중미 코스타리카와 중국 요령성에서 5명의 연수생을 받아들여 정치망어업을 현장체험과 본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법에 의한 학습회, 제망공장·시장·수산가공장 등의 시찰, 어부나 국제교류단체 회원과의 디스커션, 그물주인의 집에서 홈스테이 등 이문화체험을 실시하였다.

연수생들은 「정치망은 자국 어업의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해저를 침식하지 않고 어류를 포획하는 것이 뛰어나다」 등의 의견이 전해왔다.



〈사진-1〉 정치망 실지연수(코스타리카 연수생) 2000년도

● 심포지움의 개최

시내 외로부터 400명이 참가하여 「어업의 미

래와 해양환경」을 테마로한 심포지움이 히미수산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제1부 기조강연에서는 전국적, 국제적인 화제를 중심으로 해양 폐기물 등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와 수산자원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2부 판넬디스커션에서는 지역의 어업과 바다의 환경을 어떻게 지켜 가느냐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후 출연자와 참가자에 의한 어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생활에 관한 활기찬 질의응답도 실시되었다.

● 어업연구강좌의 개최

어업의 역할에 대해서 재인식하고 그 장래를 전망하기 위해 도야마현이 선진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수산분야에서의 심층수이용과 심층수빙(氷)에 의한 어류의 선도보전, 심층수의 식품분야 이용에 대해서 2강좌를 개최하였다.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에서는 시내의 수산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약40명의 참가자가 이 유용성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 하였다.

〈2001년도의 실적〉

● 해외기술지도사업의 실시

8월 20일부터 30일까지 본시의 어업자와 수산과학교교생, 자원봉사자, 어협직원, 시직원 등으로 구성된 교류단 22명을 코스타리카에 파견하여 히미 앞바다에서 실제로 조업되고 있는 최대의 정치망과 비교하여 대략 100분의 1의 스케일로 모형망을 사용한 실지실험을 수반하는 어법지도를 실시하였다.

먼저 현지의 어업인과 연구자에게 정치망의 역

사와 구조에 대해서 강의를 실시하고 그후 실에서 모형망을 나무에 묶어 고정 한 후 그물의 설치를 설명하였다. 그 다음날에는 실제로 망을 바다에 설치하고 코스타리카 최초의 정치망어업을 실시하였다.

그 외에 코스타리카와 일본 상호간의 생선요리를 소개하는 어식문화의 교류회도 실시하였다.

귀국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보고회가 개최되었다.



〈사진-2〉 해외기술지도사업(코스타리카에서 정치망의 설치모습) 2001년도

● 정치망 신세기 포럼의 개최

북해도에서 오키나와(沖繩)까지 23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 어업관계자를 비롯한 1,100명의 참가아래 「정치망으로부터 생각하는 환경과 식료」를 테마로 「정치망 신세기 포럼」이 개최되었다. 기조강연, 판넬디스커션, 워크샵을 통해서 정치망어업을 여러각도에서 바라보고, 그 매력과 21세기에서 요구하는 역할 등에 대해서 의론을 전개하였다.

자연과 공생하여 가는 사회 실현을 위한 일조로서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이 가능한 정치망 어법의 유효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정치망어법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7. 세계정치망 서밋트 히미에서 개최

히미 정치망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집대성으로서 「바다로 연결하는 세계와 미래」를 테마로 국내외의 정치망어업관계자 등(해외34개국)의 폭넓은 참가(기간중 연 3,000명이 참가)로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세계정치망 서밋트 in 히미」가 개최되었다.

첫날에는 개최식후에 기조강연으로 노무라이치로(野村一郎) 국제연합식량농업기관(FAO) 수산국장이 「세계의 식량문제와 어업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어업이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하며 환경문제를 리드해 나아가야 한다고 인식을 제시하고, 구나 그렌백 국제해양법연구소(IOI) 전 사무국장이 「해양환경의 보전을 목표로」라는 제목으로 인류의 공동재산이고 생명을 받쳐주는 수산자원의 관리와 환경보전에 대한 세계사람들의 의식을 높여 가는 것의 중요성을 호소하였다.

계속해서 히미시가 전년 교류단을 파견하여 정치망어법의 지도를 실시한 코스타리카로부터 정치망도입의 사례보고를 코스타리카 국립대학의 알랜한드르 구티아리스 교수에게 부탁드렸다. 교수는 1년에 걸쳐 실험의 성과와 금후의 과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업자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정치망을 활용하고싶다고 생각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마지막 판넬디스커션에서는 사노 히로야(佐野宏哉) 대일본수산회회장을 코디네이터(coordinator)로 정치망실시국 스페인, 미실시국 케냐의 대표, 카와구치 교우이치(川口恭一)수산청차장, 아키미치 토모야(秋道智彌) 종합지구환경학연구소교수, 도우코시게루(堂故茂) 히미시장 등 5인의 판넬리스트가 「21세기의 지구사회에 필요한 정치망어업의 모습」에 관해서 의논하고 「정치망은 지속이 가능하고 어류를 선택적으

로 포획하는 것이 가능하며 21세기의 “책임있는 어업”의 대표선수이며 국제적으로 어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정치망은 연안의 설치되어 있음으로써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쉽다. 수산물물 이해하는 계기도 되므로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 좋다. 「정치망은 히미의 척추이고 본질(identity)이다. 세계에 널리 알리는 동시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의 자신감에 이어지기를 바란다. 「정치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업자와의 조정이나 행정과 어업자와의 상호이해, 법의 정비가 불가결하다. 「“글로벌로 생각하고 로컬로 행동한다”라고 하는말이 있으나 정치망을 핵으로 한 히미시의 노력은 지역사회에 밀착하면서 세계와도 연결되어있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틀째에는 오전중에 히미 앞바다의 정치망어업 시찰로 시작하여 처음으로 고기잡이를 본 해외의 참가자로부터 환성이 터져나왔다. 그후 히미어항내의 시장과 제빙(製氷) 등의 시설과 히미어업의 성립과정을 전시한 시립박물관 등 어업에 관계가 있는 시설에 대한 시찰이 이루어졌다.

오후에는 현립 아리이소(有磯)고교를 회의장으로 한 포스터 세션에서는 「세계의 어업과 식생활」을 테마로 포스터를 모집한 결과, 시내의 중학교, 고교, 국내의 대학, 개발기관, 수산단체, 기업, 국제협력기관 및 국외의 행정기관,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약 50점이 넘는 작품을 받았으며, 시내의 중고생이 해외의 참가자들과 교류하는 등 세계의 어업의 현황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혔다.

계속해서 개최된 어식문화교류회에서는 일본을 대표하는 요리인 미찌바 로고사브로(道場六三郎)선생을 모시고 국내외의 생선요리를 소개하였다. 회장에서는 선생이 교류회를 위하여 고안한 창작요리가 발표되는 등 어식을 통한 이문화의 이해와 교류의 고리가 넓어졌다.

3일째는 3가지 테마로 세션이 개최되었는데

세션1 「어류의 취급과 마케팅」에서는 히미의 선도보존방법과 위생관리방법이 제시되는 동시에 유통 등의 추적가능성을 명확하게 하는 일과 소비자 교육 등의 중요성이 지적되었다.

세션2 「지속적인 자원이용을 향한 정치망어업의 기술적 과제」에서는 어망관리기술자 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도입코스트 감소를 위해 각국에 있는 재료로 그물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세션3 「정치망을 통한 지역진흥과 국제협력」에서는 이전에 히미의 기술자가 해외에 기술보급에 나간 것을 소개하는 동시에 국가에 상황에 맞춘 그물 개량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또한 회의장에서도 다수의 의견이 나오는 등 대략 6시간에 걸쳐서 뜨거운 토론이 전개되었다.

최종일에는 「세계정치망 서밋트 in 히미」선언을 채택하고 「바다와의 공생」을 위한 5가지 대책의 추진을 확정하고 서밋트를 폐막하였다.

- 해양환경의 보전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이용 등을 향한 대응책의 연구와 실시
- 세계 환경에 친근한 정치망어법의 발신과



〈사진-3〉 「세계 정치망 서밋트 in 히미」
(최종일 선언문을 낭독하는 도우코시게루 히미시장과 참가국의 대표들)
2002년도

보급

- 세계 지역진흥에 향한 정치망 기술의 개발과 적용
- 국제교류·협력의 추진을 통한 정치망기술의 향상과 인재양성
- 어식문화의 교류로 인한 수산자원의 유효이용의 추진

8. 금후의 전망에 대해서

금후에는 본 서밋트에서 채택한 선언을 존중하는 동시에 3개년의 「히미정치망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민과 수산업관계자의 참가하여 원형, 틀을 바꾸어서 각종사업에 대처하여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도시어촌교류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외연수생을 받아들여 정치망어업연수나 본시의 정치망어업전문가를 해외에 파견하여 기술지도, 국내외의 학생이나 연구생과 시내고교생 등과의 공동학습 등을 실시하여 교류에서 얻어지는 정보나 기술을 지역의 수산업에 활용하여 활력의 창출에 이어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수산업의 진흥이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의 이용·활용을 촉진하면서 어업기술의 향상이나 수산가공분야에 있어서는 신제품의 개발 등 이후 요구되는 연구·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㉔